

## 고령무용수 몸의 위계와 전복

\* 이 나 현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수 연령 위계의 이중성
	III. 무용수 몸의 주체성과 위계의 관계
	IV. 결론
	참고문헌

---

\*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연구원  
논문투고일 : 2023.01.30      논문심사일 : 2023.02.10

게재확정일 : 2023.03.06

## Aging dancer's body hierarchy and subversion

Lee, Na-hyun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This study examined the multiple layers of the perspective on aging dancer in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in order to discuss the emergence of the aging dancer as a emancipated subject acquired through the subverting of the double hierarchy centering on 'youth' and 'elderly'. In Korean traditional dance, there is a tradition of highly valuing the stage of senior dancers who can show a more mature beauty than younger dancers due to the aesthetic structure that pursues the perfection of the personality of the dancer and the beauty of moderation and slowness rather than the virtuosity. Even in contemporary dance,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culture of respect the elder dancers for their diligence and self-management to keep themselves on stage. However, as the education of young dancers is centered on techniques for competitions and entrance exams, in which young dancers' agile, strong control and excellent flexibility are emphasized. In this environment, aging dancers are compared not only with the young dancers they dance with, but also with their own youth, and cannot be free from young and virtuosity oriented gaze. In this complex environment, if art is a matter of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following Rancière, to be able to emerging the aging body on stage with new vision, aging dancer needs to be subjective being by subverting the hierarchy centered on 'youth' and 'elderly'.

In an aging society, the problem of the elderly is that art can no longer ignore. In contemporary dance, which is engaged various body politics, this issue seems to need to be dealt with with a sharper perspective.

**<key words>** aging dancer, body hierarchy, subjectivity, Korea traditional dance, Korea contemporary dance, Jacques Rancière

**<주요어>** 고령 무용수, 몸의 위계, 주체성, 한국 전통무용, 한국 컨템포러리 무용, 자크 랑시에르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복지,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용 연구에서도 노화(ag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용이 노인의 웰빙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전문무용수의 노화에 대한 문제도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다. 무대 위의 고령 무용수(aging dancer)에 대한 논의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예술적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보다는 공연계에서의 실천에서 더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해외의 고령 전문무용수에 대한 논의 중에서 Nakajima, N.와 Brandstetter, G.(2017)의 편저 『The aging body in dance』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양과 일본의 고령 무용수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의 무용학자 Schwaiger, L.(2005)의 연구는 호주 컨템포러리 무용에서의 고령 무용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실마리를 미국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시작된 주체화된 무용수라는 특징에서 찾으려 한다. Musil, P., Risner, D. 그리고 Schupp, K.(2022)의 편저 『Dancing across the lifespan: negotiating age, place, and purpose』는 생애주기별 무용수의 삶과 무용교육을 사회문화적 이슈들과 함께 다루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서양과 비교하여 한국 무용 예술에 등장하는 고령 무용수에 대한 관점을 다층적으로 살피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젊음’과 ‘원로’를 중심으로 한 이중의 위계의 전복을 통해 획득한 해방된 주체로서의 고령 무용수의 등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전통무용의 경우 일본과 유사하게 원로들의 춤을 단순한 신체적 기교를 넘어 원숙미를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로 표현해 오곤 하였다. 한편, 한국의 컨템포러리 무용은 장애의 몸(disabled body)이나 일상의 몸(ordinary body)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고 고령의 몸(aging body)의 등장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무용에서의 원로 무용수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안무가이자 무용수로 활동하는 원로 무용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한 몸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전통무용에 대한 시각, 그리고 성과 중심적 교육의 영향이 얽혀 형성된 결과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전통무용과 컨템포러리 무용을 나누어 고령 무용수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 Rancière, J.의 ‘정치적 미학’ 개념을 토대로 한국 무용예술에 숨겨진 몸

의 위계와 전복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Rancière, J.는 이상적 예술을 정치와 연결하여 평등의 실천으로서의 예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평등을 전제로 위계적 질서의 전복을 추구하는 그의 정치적 예술에 대한 논의는 국내 예술계에서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 『무지한 스승』에서 출발하는 지적 능력에 따른 위계의 전복은 『해방된 관객』에서 예술가(창작자)와 관객 사이의 위계의 해체로 이어진다. Rancière, J.가 강조하는 예술의 역할은 기존 질서(치안)와의 단절이자 ‘감성의 분할(le partage du sensible)’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 무용계에 존재하는 기존 질서의 전복을 강조하지만, 이는 고령의 무용수의 새로운 등장을 위한 것이지 기존 질서나 무용에 대한 한국 고유의 미적 지향점 자체의 부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 무용계는 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원로 무용수의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젊음과 노화를 대립의 관계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국 고유의 관점을 다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고령 무용수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예술적 방식을 찾아가는데 이론적 토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 II / 무용수 연령 위계의 이중성

Nakajima, N.와 Brandstetter, G.(2017:1)는 ‘aging body’가 무용예술에서 매우 관심도가 높은 주제이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금기시되었다고 말한다. 고령 무용수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논의는 젊은 무용수와 대비하여 기교의 수행력이 떨어진 고령의 무용수의 배제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두고 있다. Rustad, H.와 Engelsrud, G. H.(2022:1-2)은 “고령 전문무용수만 제외하고 모두가 춤출 수 있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춤이 일반인의 노화 방지와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널리 활용되지만, 무대 위의 무용수만큼은 신체적 한계를 느끼며 일찍 은퇴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들은 서구의 문화에서 “노인과 춤 사이의 부조화”(Rustad, H. & Engelsrud, G. H., 2022:2)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서구의 무용예술에서 뛰어난 기교와 힘, 민첩함과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상 무용수의 은퇴 시기는 40대 전후로 다른 분야, 특히 예술 장르들과의 비교에서 매우 빠르다. 이들이 빠른 은퇴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운동능력

의 저하와 부상 등으로 인해 젊은 무용수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Bolwell, J.(2017:314)은 무용에 연령차별주의(ageism)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다층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전통무용에서 나타나는 연령에 의한 위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전통무용에서 원로들의 무대는 춤의 원숙미를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높이 평가된다. 이는 한국 전통무용이 서양의 무용과 다른 미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말복(2010:170-177)은 전통무용이 기교를 넘어 춤추는 사람의 “인격의 고양”과 “표현의 절제”, “느림의 미학”을 중요시한다고 보았다. 먼저 인격의 고양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전통무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기교보다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멋을 중시하여 내면을 완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완성되는 노년의 춤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표현을 절제하는 것과 느림의 미학 또한 오랜 연륜을 요하는 것이다. 절제의 미는 강한 표현을 억제하고 그에 따른 움직임의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내공이 필요한 것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 또한 젊음의 혈기와 강함보다는 노년의 특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와 더불어, 관절의 큰 가동범위나 과도한 근력이 요구되지 않는 동작들과 급격한 흐름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한국 춤의 특성이 오랜 시간 춤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하겠다. 이러한 한국 전통무용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용 무대에서 젊은 무용수보다 원로를 높이 평가하는 태도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전통무용은 명인의 지도하에 오랜 기간 수련을 이어가는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노화가 춤의 진정한 멋을 낼 수 있는 긍정적 지표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양의 발레와 모던 댄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국의 컨템포러리 무용에서 젊은 무용수의 기교와 특정 신체 기준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다. 한국의 전문무용교육에서 특정 기교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은 오랜 기간 무용수의 기본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안무가(선생님)와 무용수의 위계적 질서 하에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순종적인 자세와 자기관리는 한국 무용수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 무용계에서는 기교 중심의 춤이 매우 발달 됨에 따라 무용수는 특정 테크닉과 외형적 형태를 완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이는 결과 중심적인 교육관과도 연결된다. 대학 입시나 군면제 제도와 연계된 콩쿠르가 전문무용교육에서 중요한 관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영향으로 판단된다. 어린 무용수들은 콩쿠르의 우승을 위해서 날씬하고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고 뛰어난 유연성과 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특정 동작들에 최적화되게 훈련된다. 이러한 문화와 함께 무용예술은 젊은 무용수의 능력(ability)과 연결되고 고령 무용수는 이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족한 존재로 평가받는 것은 서

양과 큰 차이가 없다. 무용예술과 밀접하게 연계된 관습적 이미지, 즉 발달 된 근육과 유연하고 민첩하며 날렵한 몸매와 연결되는 ‘젊음’을 기준으로 한 위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의 외형과 기교라는 양 측면에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함께 춤을 추는 다른 젊은 무용수뿐 아니라 나이 든 무용수 본인의 과거 젊은 시절과의 비교도 진행된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7:22)가 실시한 전문무용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발레의 경우 30대 중, 후반을 은퇴시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국무용(창작)과 현대무용으로 구분된 창작 기반의 컨템포러리 무용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다. 은퇴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부상이나 체력 저하 등의 신체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은퇴 요인에 대한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갈등”(이순재, 2019:33)이나 “고용 불안정”(유태균, 김재은, 2009:365; 임영숙, 2007:11),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정명훈, 최은정, 2021:864; 하나경, 2017:36)이라는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은퇴 기대 시기는 실제 은퇴시기와 차이가 있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요인뿐 아니라 자발적 선택도 포함하고 있어 연령의 문제로 국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전통무용을 제외하면 40대 전후를 은퇴시기로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 다른 분야에 비해 이르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은 전통무용의 관점과 유교사상의 전통이 어우러져, 장르와 무관하게 고령 무용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이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춤에서 풍부한 경험과 성숙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공존한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노력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전통무용의 미적 기준 즉, 원숙미를 높이 평가하는 태도가 컨템포러리 무대에서도 작동하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안무가 자신이 무대에 서는 것은 하나의 스타일을 완성한 원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현재의 기량을 떠나 높이 평가된다. 고령의 무용수는 한국적 특성에 기인하여 ‘원로’에 대한 추앙을 토대로 형성되는 위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어른에 대한 예우라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 전통무용이 지닌 원숙미에 대한 가치평가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Franko, M.(2017:151-161)가 지적했듯이 R. St. Denis, Graham, M. 그리고 Cunningham, M.과 같은 미국 모던댄스의 전설적인 인물들은 노년에 더 이상 다른 신체 부위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도 무대에 등장하여 “최후의 수단인 손”의 움직임만으로도 아우라를 발산한다고 분석한다. ‘송고미’로 이를 설명하는 그의 논리는 한국 무용계에서도 작동한다. ‘원로’로 성장한 안무가이자 무용가들은 그들의 존재만으로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무대 위에 오른다. 그런 의미에서 고령의 무용수는 새로운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나

예술적 업적으로 언제나 무대의 중심에 있었던, 언제나 가시적인 존재였던 이들 원로 무용수의 위상이 나이 든 무용수의 위치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무용계에서는 ‘젊음’을 기준으로 한 위계뿐 아니라 젊은 무용수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도달한 ‘원로’라는 한국의 특수한 미적 기준에 기반한 또 다른 위계 또한 붕괴의 대상인 것이다. 즉, 한국의 무용 무대에서 aging body가 새로운 미적 가치를 획득하려면 ‘젊음’을 기준으로 한 질서와 ‘원로’를 기준으로 한 질서를 이중으로 붕괴해야 해야 한다.

### Ⅲ 무용수 몸의 주체성과 위계의 관계

한국 컨템포러리 무용 무대에 다양한 몸이 등장한 것은 최근 10여 년 사이의 일이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작품은 단연 안은미의 ‘댄스 3부작’으로 불리는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2011》, 《사심없는 댄스, 2012》,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2013》일 것이다. 특정 연령의 일반인들의 춤을 무대화하면서 한국인의 세대별 특성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 작품들이다. 이 외에도 한국에 소개된 Bel, J.의 《Disabled Theater》와 《Gala》는 일반인과 장애인의 춤을 무대화하여 전문 무용수의 전유물이던 무용 무대의 경계 허물기를 시도한 작품들이다. 이 무대들은 공통적으로 도구로서의 몸이 아닌 다양한 주체화된 몸을 보여준다. 이들은 기교적인 움직임은 전문 무용수의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무대 위에 존재한다. 일반인, 장애인의 다양한 몸과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것과도 같이, 고령의 무용수가 움직임의 주체로서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이중의 위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

먼저 젊음을 기준으로 한 위계는 능력과 연결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무용계는 장르에 상관없이 원로 혹은 중견 무용수들이 직접 춤을 추는 무대를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 무대에서 능력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냐는 것이다. Albright, A.(1997:66)는 장애 무용수와 비장애 무용수가 함께하는 Cleveland Ballet Dancing Wheels 무용단이 낭만 발레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비장애 무용수 중심의 기교에 기준을 두고 있는 점과 “몸을 극복한 정신의 승리”라는 홍보문구를 문제 삼으며 이것이 장애의 몸을 은폐하고 장애

를 극복한 정신을 강조하는 논리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논리는 고령 무용수의 무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무용수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많은 나이에 불구하고 특정 움직임을 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이든 몸은 은폐되고 그들의 정신만이 부각 되는 오류에 빠질 것이다. 한국의 무용 무대에서 배제된 적은 없지만 춤추는 무용수의 나이든 몸이 온전히 무대에 드러나고 받아들여졌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Rancière, J.(1995, 진태원 역, 2015:68)는 평등이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전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몸의 등장을 통해 평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 전제된 상태에서 소외되었던 몸들이 등장함으로써 몸에 의한 정치이자 예술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Rancière, J.에게 있어 정치는 예술과 연결된다. 그는 정치(politic)와 치안(police)을 구분하고 치안을 “감각적인 것의 짜임”(Rancière, J., 1995, 진태원 역, 2015:62-23)이라고 정의한다. “부분들 및 부분들의 몫이나 몫의 부재가 정의되는 (치안이라는) 짜임과 단절하는 것”(Rancière, J., 1995, 진태원 역, 2015:63)이 정치이며 이러한 정치는 신체 즉 감각과 연결된다. 치안이라는 짜임(configuration)은 “신체들이 그것의 이름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과제를 부여받도록”(Rancière, J., 1995, 진태원 역, 2015:63) 하는 신체들의 질서를 의미한다. 이 질서, 즉 치안은 “어떤 활동은 가시적인 것으로 다른 활동은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어떤 말은 담론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말은 소음에 속하는 것으로 알아듣게 만드는”(Rancière, J., 1995, 진태원 역, 2015:63) 것이다. 이러한 질서와 단절하여 소음을 담론으로,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분할(partage), distribution 하는 것, 즉 ‘감성의 분할(le partage du sensible,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자 예술의 임무다. Rancière, J.(2000, 오윤성 역, 2008:13)는 예술의 역할이기도 한 ‘감성의 분할’을 “어떤 공통적인 것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몫들과 자리들을 규정하는 경계설정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감각적 확실성”이라고 정의한다. 정치가 ‘각각의 몫들과 자리들을 규정하는 경계설정’이라는 감성의 분할에 관여하기에 정치는 예술과 공통분모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젊음’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질서 하에, 무용 무대에서 자리를 잃었던 ‘aging body’가 무대 위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새로운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평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젊음과 노화가 평등한 선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평등을 전제로 한 정치, 즉 ‘감성의 분할’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해방’은 일어나지 않는다. 젊음을 기준으로 한 질서 안에서 고령의 몸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추락한다. 즉, 기교의 가시화를 위한 질서가 유지된다면 고령의 무용수는 젊은 무용수와 비교하에 의해 부족한, 더 나아가

비가시적이고 소음과도 같이 무대 위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무대에 남게 될 것이다. 나이를 극복의 대상으로, 그리고 나이를 극복한 정신의 승리에 가치를 둔다면 그것은 기존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결과로, 새로운 감각을 자극하는 감성의 분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능력을 중심으로 한 ‘젊음’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에서 벗어나 다름을 가시화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춤추는 고령의 무용수의 몸이 감각의 대상으로 무대에 온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Rancière, J.(1987, 양창렬 역, 2008:76)는 『무지한 스승』에서 지적 위계의 붕괴를 통한 “해방이란 모든 인간이 지적 주체로서의 본성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존 질서의 붕괴를 통한 해방은 곧 자신의 몸과 움직임의 주체로서의 본성을 의식하는 것, 즉 주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용수의 ‘주체로서의 본성을 의식하는’ 주체성의 강조는 컨템포러리 무용에서 안무의 지향점의 변화에 따른 무용수의 역할 변화에서도 발견되는 지점이다. 오늘날 “무용수는 재현을 위한 복종적 실행자가 아닌 안무의 소재가 되는 원천이자 안무과정에서 안무가의 협업자”(이나현, 2022:72)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용수의 개별성과 주체성이 중요하게 활용되며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젊음’과 연계되는 뛰어난 기교의 수행력과 특출한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 위계에서 벗어나 주체화된 다양한 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원로’를 중심으로 한 위계의 전복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의 안무가가 무대에서 춤을 출 때 원본으로서의 권위와 함께 원로에 대한 존중과 한국 고유의 미적 가치가 뒷받침되어 그들은 무대의 중앙에서 빛을 발한다. 이는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것이 젊음과 고령의 평등, 혹은 고령 무용수의 해방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설적인 원로 무용수로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자리와 신분의 분배와 재분배”(Rancière, J., 2004, 주형일 역, 2008:55)의 작동일 수는 없다. Rancière, J.(2004, 주형일 역, 2008:81)는 “예술을 예술로서 식별하는 가시성과 담론성의 특수한 형태” 즉, “예술을 정치의 특정한 형태와 연결시키는 감성의 특정한 분할이 없다면 예술은 없다”고 말한다. 원로의 무대를 환영하는 한국 무용계에서 춤추는 노인의 몸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일일 것이다. 원로가 원로의 지위와 함께 무대에 선다면 무대 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그의 권위일 것이다. 무대는 이미 그들을 가시성의 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앞서 해방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주체성의 회복은 원로를 중심으로 한 위계의 해방에서도 적용된다. 고령 무용수의 존재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원로의 지위에서 벗어났을 때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무용계에서 고령 무용수가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전통무용과 컨템포러리 무용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전통무용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미와 기교보다 춤추는 사람의 인격의 완성과 함께 절제와 느낌의 미를 추구하는 미적 지향점에 의해 젊은 무용수보다 원숙미를 보여주는 원로 무용수의 무대를 높이 평가하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컨템포러리 무용에서도 원로 무용가들은 무대를 지키는 성실함과 자기관리의 모습 자체로 존경받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젊은 무용수의 교육이 콩쿠르와 입시를 위한 기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젊은 무용수들의 날렵하고 강한 통제력과 뛰어난 유연성이 강조되는 무대도 공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령 무용수는 함께 춤추는 젊은 무용수뿐 아니라 자신의 젊은 시절과도 비교되며 젊음과 기교 지향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에서 고령 무용수는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원로’를 중심으로 한 위계와 기교 지향적 기준에 의한 ‘젊음’을 중심으로 한 위계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기존의 질서 즉, 원로와 젊음을 중심으로 이중의 위계로부터 벗어났을 때 고령 무용수는 주체적 존재로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의 문제는 예술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양한 몸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무용에서 이 문제는 더욱 예리한 시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술이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함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외된 약자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고령 무용수가 한국의 전통적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기존의 편안한 질서(치안)에서 벗어나 aging body의 새로운 제시 방법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판단된다.

- 김말복(2010), **춤과 몸**,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유태균, 김재은(2009), “직업 무용수의 삶에 투영된 은퇴”, **움직임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2)**, 355-372.
- 이나현(2022), “컨템포러리 무용에 나타나는 무용수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1)**, 59-74.
- 이순재(2019), “국립발레단 남성무용수의 은퇴 후 환경과 진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재사회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임영숙(2007),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모델 개발 연구: 발레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 정명훈, 최은정(2021), “여성무용인의 결혼 및 출산 일과 가정 병행에 대한 인식, 무용지속의도간의 차이 연구-무용학과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855-867.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하나경(2017), “경력단절 여성 직업무용수들의 비자발적 은퇴 후 정체성 변화 과정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Albright, A.(1997), *Choreography difference: the body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dance*, Wesleyan University Press.
- Bolwell, J.(2017), “Wellbeing and the dancer” in Karkou, V., Oliver, S. & Lycouris, S.(Ed. 2020), *The Oxford handbook of dance and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o, M.(2017), “Why are hands the last resort of the aging body in dance?: Note on the modernist gesture and sublime” in Nakajima, N. & Brandstetter, G.(Ed. 2017), *The aging body in dance: a cross-cultural perspective*, Routledge.
- Musil, P., Risner, D., Schupp, k.(Ed. 2022), *Dancing across the lifespan: negotiating age, place, and purpose*, Palgrave Macmillan.
- Nakajima, N. & Brandstetter, G.(Ed. 2017), *The aging body in dance: a cross-cultural perspective*, Routledge.
- Rancière, J.(1987), *Le maître ignorant*, 양창렬(역, 2008), **무지한 스승**, 경기:궁리.
- \_\_\_\_\_ (1995), *La mésentente: politique et philosophie*, 진태원(역, 2015), **불화: 정치와 철학**, 서울:도서출판 길.
- \_\_\_\_\_ (2000), *Le partage du sensible: esthétique et politique*, 오윤성(역, 2008),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서울:도서출판.
- \_\_\_\_\_ (2004), *Malaise dans l'esthétique*, 주형일(역, 2008), **미학 안의 불편함**, 경기:인간사랑.
- Rustad, H. & Engestrud, G. H.(2022), “Every body can dance—except aging professional dancer! A Discuss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aging dancing body in four texts”, *Frontiers in sports and active living 25(4)*, 1-9.